

《거세된 희망》

복지국가, 그것은 개꿈인가?

우리가 마치 21세기 지구촌시대를 살아가는 선진국의 국민인양 하지만 막상 우리의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 국민의 인식면에서는 아직까지 국가에 대한 권리보다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훨씬 더 크게만 느껴지는 걸 보면, 복지니 복지정책이니 하는 시민사회 담론이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글_심법섭

시민사회의 주인의 입장에서 읽어낼 수밖에 없는 복지 의미의 의미가 그냥 꺾전을 스치고 지나는 그래서 그 본질적 개념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아직도 우리의 의식구조 어딘가에 왕조시대와 식민시대 그리고 군사정권을 살아오면서 각인된 못된 권력의 유령들이 유산으로 고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라는 어휘는 일본이나 구라파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이들의 가방 담론으로만 여겨졌었다.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의 흐름을 타고 정치인들의 입 초사를 오르내리던 끝에 이제는 온 세상의 관공서 앞을 치장하는 구호가 되고 있다.

다행이지만 아직은 그저 이름 모를 귀화식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말꾼들이 그려내는 그런 환상과 호사 물건을 눈을 부릅뜨고 그 바탕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흉악한 본질을 보기 좋게 까발리는 이가 있다.

복지라는 걸 대견스럽게 바라보면서 희망과 꿈이 있는 새로운 대륙으로 바라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지만... 그건, 높고 푸른 희망이 아니고 신기루 같은 환영일 뿐이며 실체가 아니란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노동자와 민중을 가두는 환상의 감옥일 수 있다.

‘복지국가’ 과연 희망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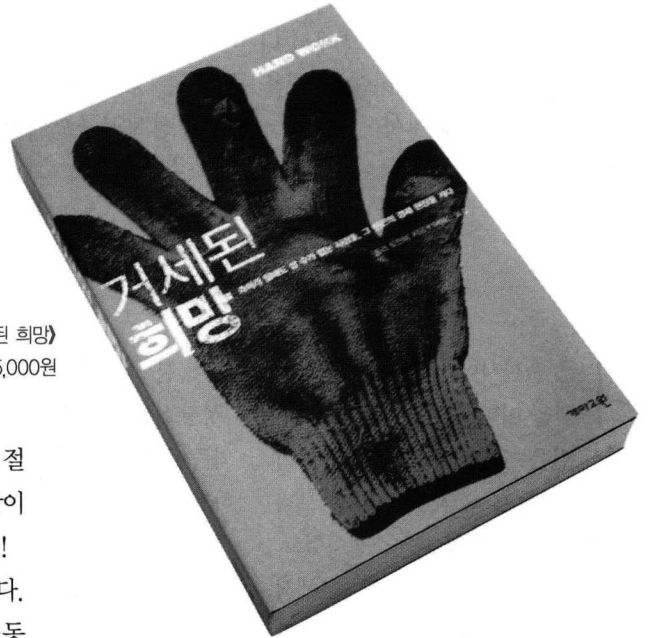
만약 어떤 공상과학의 이야기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직접 우리 눈으로

미리 볼 수 있다면 신기한 것은 둘째 치고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그러면 모든 알가알부와 시시비비는 싹 사라지고 말 것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복지’라는 것을 펼쳐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복지국가, 그런 꿈에 풀무질을 해대면서 복지를 말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도 그 뒤를 이어 날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렸지만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였고 그 이념은 ‘제3의 길’이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우리의 앞에 실현되고 있는 현실임을 말해준다.

어떤 정책이 지구촌의 이곳과 저곳에서 현실과 미래로 펼쳐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앞서 간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졸졸 따라가면서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마침 기회가 생겼다. 영국 <가디언>지의 칼럼리스트 폴 리 토인비가 제공하는 《거세된 희망》에 승선해 보자.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자니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꿈이 아님은 물론 희망을 가장한 절망이라는 것이다. 사뭇 심상치 않은 이야기다.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는 물론 지금 막 ‘신세계’의 단꿈을 꾸기 위해 이부자리를 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것이 희망이 아니고 거세된 희망이며 허황된 기만임을 알아야 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거세된 희망》

폴리 토인비 지음 | 이창신 옮김 | 개마고원 | 384쪽 | 값 15,000원

복지국가는 '과대포장' 이고, 그것은 '희망' 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알맹이를 포장한 가짜 희망이라는 것이다. 희망이 아니라 대물림 되는 '가난' 이요 대물림 되는 '절망' 이라니!

그는 직접 복지정책이라는 기만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병원 잡역부, 텔레마케터, 빌딩 청소원, 빵공장 노동자,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희망으로 포장된 절망의 현장을 살살이 누비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온 몸으로 말하고 있다.

체험을 통해 증거를 채집하고 보도하는 그의 주장은 그래서 그 누구의 반박도 쉽게 허락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거세된 희망》의 장점은 대물림 되는 가난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그 가난과 싸우는 복지정책이라는 국가의 기획을 바라보면서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지금 영국의 저임금노동자가 영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노동 정책에 의해 복지라는 감옥에 갇혀 단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의 삶이 아니겠는가. 복지정책이란 결국 인간을 사육하는 도구는 아닌지.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부터 살펴봐야

하연간 복지정책이 허황된 기만이라는 폴리 토인비의 주장은 '21세기 선진국' 이라는 자못 그럴싸한 자부심으로 '복지국가' 에 대한 부푼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에게 혹 우리

의 이 꿈이 개꿈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안개처럼 피어오른다. 내심 폴리 토인비의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참에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부터 살펴봐야 한다.

진정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면 뭔가 아주 새로운 제도를 창조해야 되련만 그게 무엇인지, 저자 폴리 토인비도 딱히 이래야 한다고 뭘 말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는 이 책을 다 읽어 내려가도 마찬가지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다. **한문**

심범섭님은 건국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문화사랑방 인서점 대표이다.